

신령한 복

제1과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8-9페이지에 나와있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을 따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녀임을 깨닫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

오늘의 말씀 : 에베소서 1:1~14

묵상할 말씀 : “그[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5절).

찬송 : 20장(통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Kingdom Life



배경설명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느꼈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본 서신을 시작한다.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문안 인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되었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신 성도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제시한다(6, 12, 14절).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무려 8번이나 사용한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장래 기업에 대한 성령님의 인치심의 근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도움말 :

- 신령한 복(3절, 헬: 올로기아 프뉴마티케): 신령한 복의 핵심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3절, 헬: 엔 크리스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다(4, 6, 7, 9, 11, 12, 13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구원 및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 예정(5절, 헬: 프로오리조): 사전에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라는 뜻이다.
- 속량(7절, 헬: 아폴리트로신):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혹은 죄수가 선고 받은 형을 면제 받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륜(9절, 헬: 오이코노미안): 문자적으로는 '집 안을 다스리는 규범'이라는 뜻이며, 본문에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규범 혹은 섭리를 의미한다.
- 그 뜻의 비밀(9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죄로 인해 타락한 온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0절 참조).
- 기업이 되었으니(11절, 헬: 에클레로테멘): '제비를 뽑아 지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제비 뽑히듯 하여 하나님의 소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신 32:9참조).
- 인치심(13절, 헬: 에스프라기스테테): 인, 또는 도장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문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보증(14절, 헬: 아르라본): 전액 지불을 약속하면서 선불로 주는 예약금, 또는 보증금을 뜻한다.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에 집중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

1. [관찰 질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까?(3-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해석 질문] 창세 전에 예정된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및 ‘삶’과 관련하여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요?(4, 6절 참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구원 받기로 예정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 받기로 예정되었을지라도 자유의지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의 기존 생각을 정직히 나누어 보게 한 후, 인도자가 이어지는 설명을 참조하여 정리해 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즉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거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구원 받기로 예정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바울의 설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4절). 참고로, 바울이 언급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이다(5절).

[거울 질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 죄 사함을 받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 등. 참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2. [관찰 질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때가 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7-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해석 질문】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는 예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해 줍니까?(11절, 도움말 참조)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함을 입은 자들도(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며 이 세상과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다(롬 6:17-18 참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 값을 치루어 주셨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거울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 죄 사함 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혹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신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3. 【관찰 질문】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13-14절)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을 인쳐주심으로 그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해석 질문】 성령의 그러한 역할이 예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메세지는 무엇일까요?(도움말 참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재산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인을 찍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 하나님의 소유(백성)가 되었음을 표시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보증금)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을 결국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은 자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14절 참조).

【거울 질문】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오랜 고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로 인쳐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삶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몰려올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힘을 더해주시기 때문이다.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 혹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써 격려와 도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말씀 살기

*인도자는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각자가 나눈 후에는 그 말씀을 한 주간 매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자.

1.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깨달은 당신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보고,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예: 이웃 사랑)을 찾아 행하려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며 자랑할 것이다

2.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한 복을 나누도록 하게 하심이다. 먼저, 생각 넓히기 1번 거울 질문에서 나눈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 나누어 보자. 그리고 그러한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해보고 실천해 보자. 예)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기, 지역 시설과 연계하여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기 등.